

장학월보

2010
제209호(통권428호)

7

- 장학특집 / 교육감에게 바란다
- 교육정보 /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아이들이 가전제품을 놀이도구처럼 인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가전제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다음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2 냉장고, TV, 세탁기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합니다!



3 세탁기, 냉장고 등에
손, 발을 넣거나 끼이지 않도록 합니다!



4 전자레인지, 오븐 등
뜨거운 물건은 조심하게 합니다!



5 가전제품 콘센트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7 제209호(통권 428호)



02 권두언
06 교육감 동정
07 장학현장
08 특집 /

교육감에게 바란다

18 전문가 초대석
20 수업기술 나누기

24 교육정보

33 이색 교육현장

56 참여마당

63 향기나는 서가
65 지상갤러리

• 함께 하면 더 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고영진

•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과의 대담 / 편집위원
• 우리 모두 으뜸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허경희
• 유아교육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주시길 / 우영혜
• 경남특수교육 뿔을 더욱 살려 주십시오 / 강찬기

• 건강상식 - 수술 후에 팔이 붓고 당겨지는데 괜찮은가요? / 장석원
• 소박한 우리 소리, 민요와 친구 되기 / 전명옥

• 좋은 수업 만들기를 위한 자기 성찰적 질문 / 박을순

•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이병만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경남교육청의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교육 / 김창수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김성미

•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아름다운 동행 / 김혜영

• 북상초 6학년, 우리는 대표팀이다 / 오중환

• 학교역사찾기로부터 시작되는 학교사랑 / 김복근

• 친환경 그린스쿨로 새롭게 변모한 가람초 / 김종원

• 한마음 이어달리기를 통한 몸짱 도전기 / 정수영

• 마음을 이어주는 전화 / 송애리

• 세 학교 한 학급 이야기 / 하재설

• 6.25 60주년 지리산 체험학습 실시 / 김경희

• 가족봉사 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 김태욱

• 교 원 - 국제기록문화 전시회를 다녀와서 / 박연옥

-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수업축제의 장으로! / 조영봉

• 학 생 - 꿈만 같은 수학여행 / 김민아

• 헬렌 켈러 - A Life / 한정자

• 귀향 / 이봉진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8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7월 20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안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7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 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배정철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함께 하면 더 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고 더 큰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도민께서 저를 15대 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역대 교육감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일구어 놓은 좋은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여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공교육은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 하면 더 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희망찬 경남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할 때 일선 교육현장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교육 현장을 챙기고 더 낮은 자세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경남교육에는 반드시 희망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공교육이 제대로 평가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자질을 익힐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기본부터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책 읽는 경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한 부모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복지를 큰 폭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제 경남에서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하지 못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학교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 과정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담할 방침입니다. 그리하여, 장애학생의 학부모님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곧 설립될 ‘경남 인재 미래재단’을 통해 제2의 김연아, 박지성, 빌게이츠도 이곳 경남에서 길러 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비한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어 공교육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마다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가 꿈을 키우고 가꾸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잡무를 줄여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 교육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실현시켜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다시 1등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함께 지혜와 열정을 쏟아야 가능합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경남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경남교육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 으뜸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희망교육을 통해,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경남교육의 새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제15대 교육감 취임식
- 02 제15대 교육감 취임 선서
- 03 제9대 경남도의회 개원 축하
- 04 초등학생들과의 대화
- 05 통영 옥지도 원량초 방문
- 06 통합창원교육청 개청식 축하



07-



08-



10-



09-



11-

- 07 남해교육청 - 장애인 비장애인 결연 하나로 통합캠프
- 08 밀양교육청 - 교외 생활 지도
- 09 경상남도교육청 - 농촌일손돕기
- 10 진주교육청 - 다문화 국악체험
- 11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물입독서 강연회
- 12 함양교육청 - 섬진강 생태체험



12-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과의 대담

장학월보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 :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년여 만에 다시 15대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새롭게 이끌어가실 텐데요.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고영진 교육감(이하 교육감) :

감사합니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의 선거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남교육 무결점 운동 5 제로’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2개의 큰 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약칭 5무(無)로 일컬어지는 ‘경남교육 무결점 운동 5 제로’의 실천방법론을 살펴보면 꼴찌제로, 비리제로, 부당제로, 사고제로, 잠무제로로 세분됩니다.

또 이를 거시목표로 세분하면 학력신장, 신뢰회복, 부당제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교원실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력신장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공·사립 차별 없는 교육행정지원, EBS교육방송 활용한 인터넷 강의, 학력지원 대학생 멘토링제, 농어촌 기숙형 중·고교 운영, 장애학생 체험수련장 개원, 다양한 영재 학교 운영,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전문 감사 참여제 추진,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주력, 다양한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인사제도 개선, 여성관리직 임용할당제, 교육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세부공약으로는 방과후학교 과목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 확대 실시, 청소년 가장·한 부모 가정·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영어체험교육원 개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의 세부공약으로는 통합SOS돌봄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 보급 확대,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 교사 잡무를 줄이기 위한 세부공약으로는 수업전담 교사제 조기 도입,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인턴교사의 교무행정 보조 등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투자를 주 골자로 한 인재 발굴과 육성의 실천방법은 경남인재재단 설립과 천만원 대학등록금 시대에 대비한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시목표를 살펴보면 경남인재 토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미래교육투자 자산조성 및 지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경남인재 DB를 구축하여 국제인재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2단계 사업으로 영재 발굴 및 지원, 지식투자사업, 학술연구 및 지원 등을 활발하게 벌일 계획입니다.

▶**편집위원** : 선거공약 사업의 기본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 : 크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표류하는 경남교육을 바로잡아 고품질 경남교육으로 경남교육 1등을 되찾고 결점 없는 경남교육을 만드는 것이 실천목표이자 정책브랜드입니다. 경남교육의 희망 찾기는 결점 없는 경남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완결은 인재육성에 있다고 본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편집위원** : 이런 의미 있는 공약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 :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에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행정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과 무상교육 범위 확대, 사교육 수요대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교원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하교길 안전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 및 단위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조기 도입과 문서 자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편집위원** : 교육의 전환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경남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될 텐데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교육감** :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0년 교육과정 로드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의 좋은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키되, 더 나은 경남교육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은 2011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편집위원** : 교육감께서는 시사포커스 경남과 가진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는 가급적이면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교육의 합리적 방향이 무엇이라고 내다보고 계십니까?

▶**교육감** : 일관성과 효율성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다름 아닌 우리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가 성적 순위를 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느냐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경남교육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편집위원** :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육감** : 이번 6.2 선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계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차대한 이때, 제가 15대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저는 지휘를 맡았습니다. 단원인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실 때 청중인 교육수요자는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희망교육을 통해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경남교육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과의 대담

우리 모두 으뜸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 경 희
울하초등학교 교감

먼저 민선 2기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경남교육계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각 후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편 가르기를 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폄하하는 모습은 정치판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교원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입지가 결정되는 듯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교육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하실 일은 모두를 감싸 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잠시 흩어졌던 교육력을 한 데 모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해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약하신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책 읽는 경남' 만들기,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장애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학교 설치,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 도입, 공립 자율형 고교 신설,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 등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매니패스토 정신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 정책에 대한 교육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만한 경남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정책으로 뜻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째, 원칙 있는 인사행정을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선거 기간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여러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쓰실 때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이라는 맹자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라는 뜻과 같이 물 흐르듯이 순리적인 인사행정을 하신다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인사행정으로 3만여 경남교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각종 행사들이 통폐합되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교원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학교정보공시 업무로 인해 예전보다 업무량이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많습니다.

공문서를 생산하는 교육청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공문을 줄이고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학교에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면 교육감님의 임기 내에 교원업무경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소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에 따른 역기능,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 성과급의 차등폭 확대에 대한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권한 범위 안에서 소신 있는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선 교사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직사회에서 무능한 교원과 매너리즘에 안주하고자 하거나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일부 교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쏟아져 나온 설익은 교육정책들로부터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교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현장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교육감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육에서 나오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쳐 으뜸 경남교육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앞으로의 경남교육 비전을 밝혀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으뜸교육이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며 오로지 바람직한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그 뜻이 왜곡되어 각종 실적을 얻기 위한 1등 하기 경쟁에 매몰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으뜸 경남교육'의 좋은 취지를 일선에 제대로 알려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째, 교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선 학교는 강사와 인턴교사, 보조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에 인턴교사 3,000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보조 역할을 할 뿐 학습지도며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규교사 채용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교과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따라야 하겠지만 경남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교사 임용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다가올 방학을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자녀가 희망인 학부모는 더욱 힘을 내어 일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 또한 제자 사랑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4년 뒤 우리 경남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으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아교육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주시길……



우 영 혜
거창유치원 원장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을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의 경험과 덕행으로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오신 교육감님께서
예전처럼 열정과 리더십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재임하시던 시절에 유아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경남유아
교육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원년의 해’, ‘유아교육 진흥의 해’
등의 슬로건을 걸고 경남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시는 등 경남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의 취임으로 경남 유아교육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으며 꼭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농·산·어촌의 소인수 유치원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낙후되어 가는 공립유치원의 소인수 유치원을 통합하여
원아수급 현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면 공립유
치원이 활성화되어 농·산·어촌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연중 종일반에 유아를 맡기고 마
음농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으로 도시의 유입인
구가 많은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적정규모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은 서민의 사교

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경남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 교육청 중에 아직도 초등장학사가 유아교육을 겸직하고 있는 교육청이 군단위로 9개청이나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교육청당 1명의 장학사 업무로 군단위 교육청 겸직장학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아직도 겸직하고 있는 군단위 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여 주시고, 특히 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를 설치하여 미래 인재양성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경남유아체험교육원의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임 시절 고영진 교육감님의 유아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관심으로 유아체험교육원이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유아체험교육원에 교육연구사를 배치하여 주시고 실내·외 체험시설을 보완·확충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의 유아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이 우리들의 꿈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경남교육의 변명을 기원합니다.



경남특수교육 氣를 더욱 살려 주십시오



강 찬 기
통영잠포학교 교장

2년 6개월 전 떠나셨던 경남교육 수장으로 되돌아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신 자리라 교육사랑의 열정도 더 크시리라 생각하니 현장교육을 책임지는 저희들로서도 기대가 큼니다. 2년 6개월 전 그 자리에 계실 때 1등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시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경남교육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남교육 전체와 특수교육관련 내용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능력있고 정직한 인재 등용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이고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가 된 후 일선에서는 지연이나 학연 등을 통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거론되기도 하고, 줄서기 행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남교육발전에 적합한 정직한 인재를 고루 등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장, 교감, 행정실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의 개선

학교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정부의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의미에서 보거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 제도로 인해 교육의 본질 추구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방향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 공개 횡수라든지, 평가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억지로 수치화한다든

지, 학부모와 학생을 너무 깊이 개입시켜서 인기 중심의 교육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동료평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 척도의 적용 등 여러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교 포화상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현재 경남은혜학교가 52학급, 경남혜림학교가 44학급, 진주혜광학교가 39학급, 창원천광학교가 38학급으로 경남공립특수학교가 한결같이 거대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특별실을 없애고 그것도 부족하여 정규교실을 간막이로 쪼개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의령에 있는 경남은광학교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나 신설 학교인 통영잠포학교도 13학급 규모로 지어진 학교인데 2010학년도에 18학급으로 늘어 포화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영잠포학교는 주위의 토지만 매입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으나 은혜, 혜림, 천광, 혜광학교는 거대 학교로서 특수교육의 특성상 더 이상 학급 수를 늘리면 교육에 무리가 따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 단위 특수교육원 신설

장애학생의 수련·체험활동, 특수교원연수, 학부모연수, 특수교육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하면 일반 시설에서 이루어져도 된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겠으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통합장원시가 되고 남은 교육청이나 폐교를 활용한 도 단위 가칭 특수교육원(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수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위에서 언급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특수교육 관련 각종 민원에 대처하며, 경남특수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남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획팀을 구성·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당면 과제가 해결된다면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시설,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특수교육 교직원들도 함께 기 펴면서 근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새 교육감님과 경남교육에 목젓이 보이는 웃음만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수술 후에 팔이 붓고 당겨지는데 괜찮은가요?



유방암 수술 시에 액와부(겨드랑이) 임파선에 대한 수술은 암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겨드랑이나 팔의 미세한 감각신경은 어느 정도의 손상을 받고 감각이 무뎠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간혹 피부신경의 자극으로 인하여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과잉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 대부분 호전되지만 간혹 수년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 수술한 쪽의 팔이 무거우며 어깨운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유착되며 이완이 되지 않아 운동장애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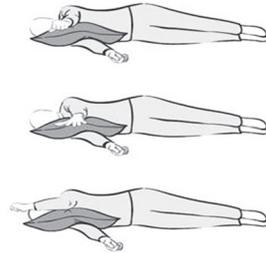
유방암 수술 시에 겨드랑이 임파선을 제거한 후 6~8주 후에 림프관이 막히거나 위축되면 팔꿈치나 심지어 손목까지 바이올린 줄 같이 딱딱한 것이 만져질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운동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림프관과 림프절이 손상되어 팔의 림프액이 심장으로 순환되지 못하여 손과 팔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물리치료나 팔을 뻗는 운동 등을 반복하면 림프관이 일부 재생되어 위와 같은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운동 요령

예방 운동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 5~25회 정도 반복을 하며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강도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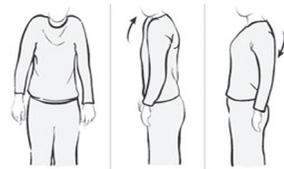
가. 수술 후 3~10 일 운동

수술을 시행한 쪽의 팔을 베게 등에 받혀서 베게 위에 올리고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난 후 팔을 뺀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15~25회 반복합니다. 그 후 그림과 같이 수술한 쪽 팔의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운동을 15~25회 반복합니다.



그림과 같이 양쪽 어깨를 올리고 난 후 약 15초 동안 올린 상태에서 고정하고 난 후 서서히 어깨를 내립니다. 내리고 난 후 어깨를 원운동 하듯이 돌리는 운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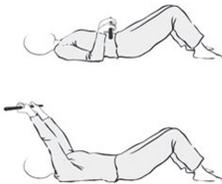
이러한 행동을 약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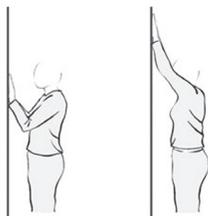
손가락 각지를 낀 후 양 팔꿈치 방향으로 각지가 빠지지 않게 당깁니다. 당기면서 서서히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운동을 5~10회 반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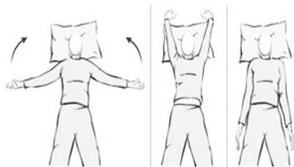
나. 수술 후 첫 6주 동안의 운동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쪽 올린 후 약 1~2초간 정지하고 나서 서서히 다시 팔을 내리는 동작을 5~10회 반복합니다



양 손바닥을 벽에 붙이고 벽을 따라 팔꿈치를 펴면서 손바닥을 올립니다. 이 때 환자의 손이 가장 높이 올라 갈 수 있는 높이까지 발뒤꿈치를 들면서 시행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양팔을 펴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소박한 우리 소리, 민요와 친구 되기



전 명 옥
고성초등학교 교사

민요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이나 악곡의 특징 등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의도적 ‘지도’ 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그저 ‘좋다’, ‘즐겁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가사 길게 이어가기로 발성연습 하기

민요를 부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성이 필요하다. 우리 음악에서는 소리를 띄우거나 공명시키는 데 힘쓰지 않고 단전에 힘을 모아 본래의 소리 그대로를 내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성 발성’이라 한다.

통성을 연습할 때에는 어단성장(語短聲長)을 기억하며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어단성장이란 말 그대로 낱말은 빨리 붙이고 소리는 길게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전라도’를 ‘전~라도’라고 하여 앞부분을 길게 빼면 듣는 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므로 ‘전라’를 붙이고 뒷부분의 ‘도~’를 길게 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른 띄어쓰기의 예로 흔히 들고 있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의 경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발성의 중요성은 전달력에 있듯이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어단 성장을 함께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사 길게 이어가기’ 게임으로 재미와 훈련을 겸할 수 있다.

가. 연습할 민요 곡을 선정한다.

나. 민요 가사를 호흡 단위(한 숨)로 나눈다.

다. 아이들이 교실 앞과 뒤편에 나누어 선다.

라. 지그재그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서로 마주 보고 자세를 갖춘 뒤 자신이 맡은 부분 (한

호흡부분)을 어단성장에 맞추어 복식호흡으로 최대한 길게 발성한다.

마. 이때 발성은 본연의 노래와는 관계없이 호흡의 길이와 발성 중심으로 진행하되 한곡을 마친 시간을 재어 점점 길어지도록 한다.

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낱말 이어가기(단어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정도) 형식으로 시합을 해도 좋다.

2. 신체표현으로 민요의 즐거움 더하기

민요 부르는 그 자체가 전문인 키우기를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과 뿌리를 알고 아이들의 정서를 보다 풍부하게 하며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얼굴의 표정과 몸동작이 중요하다. 몸동작이나 표정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그것이 작위적이거나 보이기 위한 것이면 오히려 보는 이가 자기 스스로도 어색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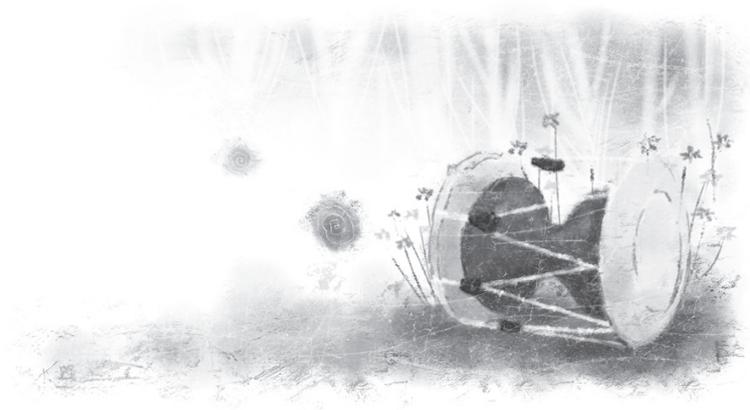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인 歌舞樂의 멋과 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신체표현이 민요 부르는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가. 장단 치기와 노래하기의 통합적 활동을 몸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래에 어울리는 장단과 호흡법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기

나. 놀이요는 놀이를 하면서 부르기

다. 일노래의 신체표현 지도는 일하는 동작하기

라. 유희요는 장단가락에 어울리는 춤사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좋은 수업 만들기를 위한 자기 성찰적 질문



박을순
사랑중학교 수석교사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교육의 중심은 ‘수업’이다. 또한,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지식 창조를 위한 안내자와 조연자가 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수업이 무엇이고, 그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수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가?

밝고 긍정적인 선생님의 표정에서 교사로서의 온화함과 자신감, 학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진다. 반면 무표정한 얼굴, 피곤한 모습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표정한 선생님의 수업은 teaching은 있는데 learning이 없다. 일방적인 설명만 있는 수업이기에 학생들은 지루해 한다.

반면 표정이 밝은 선생님의 수업은 교실 내에서의 잦은 웃음이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해 준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도 활발한데 그것은 learning과 teaching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수업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수업은 준비한 만큼 성공한다.’ ‘수업은 수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수업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수업 준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제시, 발문, 이해하기 좋은 예, 학생들의 학습활동, 판서 계획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야 하며, 더 훌륭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의 흥미를 돋우고, 졸음을 떨치게 할 수 있는 수업내용의 이면에 감추어진 일화나, 가슴에 와 닿는 짧은 이야기, 유머, 퀴즈 등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학습 목표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학습목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수업운영에 대한 약속이며, 수업의 안내도이고, 수업의

핵심(core)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형식적이라면 수업의 초점은 흐려지기 마련이다.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 – 수업의 3단계를 지키고 있는가?

전시학습을 상기하고, 동기유발과 더불어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본시학습을 전개하고, 마지막 정리와 더불어 형성평가와 차시학습 예고까지 어느 것 하나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수업이 여러 개의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그 매듭 가운데 가장 굵직한 매듭이 바로 수업의 3단계이다.

'교수'와 '학습'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는가?

수업은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와 학생의 학습하는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 효과가 높다. 선생님이 학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과정이 곧 학습이다.

발문에 답하기, 책을 읽고 핵심주제 찾아보기, 자료를 보고 차이점 발표하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 등은 바로 교사의 자극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생성학습'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구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구성해낼 때 학습의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생성된 지식의 과지(把持)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칭찬과 격려는 계속하고 있는가?

잘하는 학생을 더욱 잘하도록 하는 것이 칭찬이라면 격려는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칭찬하기보다는 격려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교육적인 면을 따지자면 격려가 더 교육적이다.

적절한 쉬이 있는가?

수업은 목적지를 향해가는 긴 여정(旅程)이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늘 아래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잠시 뒤를 돌아다보기도 해야 한다. 흥얼거림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

자신의 수업을 얼마나 뒤돌아보고 있는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 조언을 듣고, 자신의 수업을 녹화해서 분석하며,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노력들이 계속될 때 수업 능력은 향상된다. 진정한 프로는 남에게 그 부끄러움을 말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동료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여 조언을 구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수업 달인의 길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 마크 트웨인 -



이 병 만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개발담당 장학사

전보요청 등 교장 인사권 강화

■ 변경 전 내용

- 기간제교원 임용 : 1월 이상 후임자 보충이 가능할 경우에 한정
- 전보 요청 및 전보 유예 요청권 : 없음

■ 변경 내용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교원의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
 -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권자 :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 전보 요청 :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 가능
 - 전보유예 요청 :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가 요청 가능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986호)
- 시행일 : 2010.01.01

■ 문 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02)2100-6489
- 경상남도교육청 초 등 교 육 과 ☎ 268-1113
- 중 등 교 육 과 ☎ 268-1173

6학년 담임 전보가산점 부여 등 인사관리기준 변경

■ 변경 전 내용

- 가산점 평정(표창)에 직속 기관장 표창 미포함
-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에 학년 담임에 따른 가산점 미포함
-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에 통합학급 담임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복지카드 1~3급 소지학생의 담임만 해당

■ 변경 내용

- 가산점 평정(표창)에 직속 기관장 표창(0.7점) 2010.3.1. 이후 실적 포함
-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에 6학년 담임(6개월마다 0.25점) 2010.3.1. 이후 실적
-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에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으로 확대 시행 2010.3.1. 이후 실적
- 타 시·도 간 교류 중 1순위 개정 시행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p>*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제2조 : 1급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p>*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이상 거주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자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2010. 초등인사관리기준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1. 03. 01.

■ 문 의

- 경상남도교육청 초 등 교 육 과 ☎ 268-1113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읽는 순서
① 학년말 업무
② 학년 초 업무 계획
③ 업무결재 관련
④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⑤ 출결 및 전출입
⑥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⑦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⑧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
⑨ 각종 누가 기록 관리 2
⑩ 기록부 정정 대장
⑪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재 여섯 번째로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가 영역

평가의 영역명과 평가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교과] 메뉴에서 교과 편제와 시간 배정이 되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영역에 두 개의 평가 영역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영역으로 두 개 이상의 평가 영역을 등록할 경우에는 이름을 다르게 해서 등록해야 합니다.(예 : 듣기1, 듣기2 등과 같이)

2. 평가 기준

평가단계는 1,3,4,5,7단계의 5가지 단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평가 계획에 따라 각 학년과 교과별 평가영역과 내용, 단계에 대한 각 학년별 계획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서술형과 단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지원합니다. 단, 꺾쇠(), 따옴표("), 쌍따옴표(“) 등 구분문자로 사용되는 문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평가단계와 기준 일괄입력은 교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영역만이 수정 작업 가능합니다. 즉, 교과 평가가 입력이 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평가단계와 기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교과평가 내용을 먼저 삭제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3. 예시문 관리

예시문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예시문 파일올리기 작업이나 예시문 자료수집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일올리기를 실행하여 당해 학교의 서버에 등록된 예시문 파일은 다른 학교와 공유됩니다. 그리고 파일내리기는 파일올리기 작업을 통해 DB에 저장된 예시문 파일을 엑셀 파일로 생성해 줍니다.

4 교과 평가

가. 영역별 평가

평가 결과 입력은 앞서 등록한 평가 기준을 입력하거나, 임의입력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의입력 방식은 평가 결과를 서술식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나. 교과별 평가

교과별 평가에서는 여러 학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력하기 위해 적용 후에도 팝업창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평가 결과 전체를 반영하기 위해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의 모든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학기말 종합 의견

1학기 종합 의견 입력시에는 교과평가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입력한 평가를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문 조회를 클릭하여 종합 의견을 작성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예시문 중에서 종합의견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 방식과 선택 방식(클릭)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학기 종합 의견을 입력할 때는 각 학생의 번호가 활성화 되는데, 그 번호를 클릭하면 1학기 종합의견을 입력한 내용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학기말 종합의견을 입력하기 위해 한 학생의 입력 작업 후에도 [예시문 조회] 팝업창은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6. 교과학습 발달 상황

[종합의견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의견조회] 팝업창에서 1, 2학기 교과별 학기말 종합의견과 교과평가 결과가 조회 됩니다. 입력 방법은 학기말 종합의견 입력 방법과 같이 두 가지 입력 방식(드래그앤드롭 방식, 선택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력 방식 선택을 [일괄 형태] 방식을 선택하면 교과별 구분 없이 일괄적 형태로 저장 됩니다.

7. 성적 조회

성적 조회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인쇄하거나 필요할 경우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성적 조회는 [개인별 성적 조회]와 [교과별 성적 조회]로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과별 성적 조회]에서 영역과 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 학기말 종합의견, 학년말 종합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경 남교육청의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교육



김 창 수

평생직업교육과 국제교류 담당

I. 추진 배경 및 현황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②항에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재일경남 도민회와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재일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1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주 한인회와의 협약을 통해 재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과 경남학생 미국체험교육을 상호 교환 교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II. 추진 목적

재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은 모국개념이 희박해져가는 재외동포자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모국의 발전에 동참하는 재외 한국인으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III. 현재 추진되는 재외동포자녀 교육의 내용은?

재일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50~80여명의 모국개념이 희박해진 재일동포 3~4세를 초청하여 국어, 국사 등의 민족의식 교육과 조상들이 활동하였음직한 경남, 부산 일대를 방문토록 하였고, 어려움을 딛고 이룩해온 모국의 발전상을 느끼게 하기 위해 여러 산업 단지를 견학토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12명의 학생들만이 참여하였다.

한편, 재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은 애초부터 그 시행 방법을 달리하였다. 재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이 일방적인 초청과 교육인 데 반해, 재외동포자녀들에겐 하계 방학 시에 모국체험교육에 참가한 학생이 동계 방학 시에는 한국 학생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상호교환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하계 모국체험교육 시에 홈스테이를 제공한 한국학생에게 동계 미국체험연수 시에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깊은 우정을 쌓고 그들의 시대인 미래에 세계의 한민족동반자가 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도한 것이다.

IV. 행사 추진 교육적 성과

재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은 모국개념을 잊어가고 있던 재외 동포 3~4세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었다는 평가를 들었고, 재외동포사회와의 국제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자녀들의 모국체험교육은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이 장차 조국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도 되었다. 또한 동포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경남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인 감각 습득은 물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본토 발음의 외국어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미래를 함께 할 국제 친구를 가지게 된 것도 그들의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V. 추진상의 어려움

우리가 추진하는 모국체험교육 방식은 교육과 견학, 숙식비 등 일체의 체재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은 전액 무료로 시행되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국체험교육에 참가시키고 싶지만 비싼 항공료를 들여 아이들을 보내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남학생들의 미국체험연수시 제공해야 할 홈스테이 또한 바쁜 일상 업무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듯 싶다.

VI. 재외동포자녀모국체험교육,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재외 한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모국에 보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인의 얼을 지켜나가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담감은 그들의 바람을 가로 막는 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항공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을 단일화하여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해결 될 것이라 본다. 그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좀 더 많은 나라에서 좀 더 많은 동포자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훨씬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기본법 제29조가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필리핀한국국제학교



김 성 미

필리핀한국국제학교장

IN OMNIA PARATUS

Ready for anything,
꿈에 모든 것을 걸고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날의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간의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세계가 상호 연결되어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제가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의 어린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대비해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가속화로 산업화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세계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없으며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결과로서 국제적인 소양(international-mindedness)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틀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교수언어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국제 인재 육성'이라는 기치 하에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교실에서의 경험을 세상 밖의 실상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오는 9월이면 만 1년이 되는 신생학교입니다. 영어권에 설립된 최초의 한국학교이며, 아직은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 12학급이며, 한 학년에 1학급씩 운영하고 있어, 다른 한국학교보다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학교시설은 크지 않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라 필리핀에서는 다소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입니다. 물론 다른 한국학교나 한국 내 있는 학교들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운동장도 없고(필리핀의 학교는 대부분이 운동장이 없음), 여러 특별교실

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필리핀 학생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1. 우리 학교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학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IS(International School, 미국계 학교)가 아닌 KIS(Korean International School, 한국학교)를 이끌 리더가 되겠습니다.

2.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겠습니다.

가.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닌 영어로 논증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하루 2시간 이상의 영어 시간을 배정하고 수준별로 구성된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을 실시합니다.
-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사회, 수학, 과학 교과에 한국인 교사와 영어교사와 협력 수업(TEAM-Teaching) 실시하고, 뒤쳐지는 학생을 위해 한국인 교사가 수업 시간 중 또는 방과 후에 보충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수언어로 영어 사용
- 음악·미술·체육, 필리핀어 과목 및 특별활동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여 전체 교과목 중 70% 이상의 교과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 영어 노출 시간 확대를 위한 "Talk Talk English" 전일제를 실시합니다.
: 한국 교육과정(코칭시간 제외), 학생상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및 교사 전원이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인별 영어 능력의 차에 따라 영어 교과에 한해 초등학교는 2개 학년 단위로 무학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합니다.
◎ 수준별 수업 반 구성 : G1,2 Mercury/Venus, G3,4 Mars/Jupiter, G5,6 Saturn/Neptune

다. 지역사회, 지구촌의 실제적인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 이타적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 학생회 활동, 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1인 1특기 신장을 목표로 예술 및 창작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계발활동을 실시합니다.

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학습은 ‘방과후학교’ 를 통하여 보완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강좌가 개설되며, 영어 보충을 위한 ESL, 한국교육과정 보충학습(국어, 수학 등), 대학 진학을 위한 IBT 준비, 야간 자율학습 등이 운영됩니다.(무료 강좌)
- 매주 금요일 학부모를 위한 영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세계수준의 국제공인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우리나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접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초·중학교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주요 과목에 한국어-영어로 진행하여 기본학습 내용을 이중언어로 익히게 하고 고등과정에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 외에 IB과정의 이수과목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 이후, 현재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 중)
- 고등과정은 영어로만 진행되는 교과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미국사, SAT수학, 세계사, 경제, 화학, 비교정치 등

3. 필리핀과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초·중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학교를 물색 중입니다.

4. 국내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도 모색 중입니다.

- 부산교육대학교와 지난 1월에 MOU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각 교육대학의 교육실습생을 유치하여 초등 교사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 내 지자체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방학 중 영어캠프를 희망할 시에 언제든지 학교를 개방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회, 과학, 수학 과목에서의 팀티칭으로 영어 외의 과목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 중입니다.

<학교방문 홈페이지 <http://ph.koreanis.org> >

-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사진 자료 및 홍보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전경



봉사활동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아름다운 동행



김해영
용산초등학교 교장

I. 이런 만남이 좋아요!

학교는 아이들과 교사의 삶이 만나는 곳이다. 만남을 이루고 관계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 가는 공간에는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 바른 인성 함양, 실력있는 어린이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이고 교실수업개선과 수업공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학부모와 더불어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도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부모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말미암아 교육공동체의 장이 형성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II. 오밀조밀한 활동이 다양해요!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초등학교 학생은 남자 82명, 여자 62명, 유치원 18명을 포함해서 모두 162명이 오밀조밀 모여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뒷산의 자연체험학습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텃밭 가꾸기, 사육장 이용, 들관 달리기 등 자연을 친구삼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 활동에 발맞추어 학부모도 함께 학부모회(회장 이은경)를 조직하여(인원 136명)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01



02



03



- 01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식물 이야기
- 02 뱀의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놀이
- 03 관찰한 식물 붙여보기

1. 학부모회 조직 내용 및 역할

구분	내 용	인원	역 할	실시시기
명예 교사회	회장 및 학년대표	17	학부모회 운영	연중
	천연화장품 만들기	1	학부모교육 강사	2010. 6. 25
	책읽어주는 엄마	18	아침활동시간 책읽어주기	매주 수요일
	인형극 공연	5	유, 1, 2학년대상 공연	2010. 5. 29
	식품안전교육	3	유, 1, 2, 3학년대상 교육	2010. 5. 14
	막대인형극	5	유, 1, 2학년대상 공연	10월중
	논 생태체험	3	3, 4학년 대상 체험활동	7월중
	숲 체험학습	2	1, 2학년 대상	2010. 5. 28
	컴퓨터 활용	1	학부모교육 강사	7월중
	쿠킹맘	5	전 학년 대상	요리실습 시간
자원 봉사회	텃밭가꾸기	15	전교생 텃밭 가꾸기	4월, 5월, 11월
	도서도우미	5	도서실 관리	연중
	학습도우미	12	공개수업 도움	5월, 10월
	환경도우미	16	학교실내외 청소	연중
	행사도우미	28	각종 행사 도움	· 운동회 · 무척산 오르기 · 들관달리기 · 용산 수련회



04



05



06

- 04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설명
- 05 극중 마녀 이야기
- 06 인형극 출연진과 함께

2. 이런 활동이 재미있어요!

가. 숲 체험학습 활동

자연에 둘러싸인 용산초등학교에서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자 숲 연구소 프로그램 중 숲속생일잔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강사님 2분에 26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몰랐더라면 그냥 지나칠 뻔했던 교정에 있는 나무, 풀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수업시간을 배려해 주신 담임 박분선 선생님, 멀리까지 와 주신 어치 선생님, 함께 도와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이 고맙고 다행인 것 같다.(학부모 명예교사회 정미화 글)

나. 인형극 공연(헨젤과 그레텔) 활동

사단법인 색동회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보여주었다. 동화책으로 읽었던 ‘헨젤과 그레텔’을 손인형을 이용해 연극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생동감이 넘치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이동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즐기는 것 같아 엄마 된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였다. 그리고 단체생활의 예절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하다.(학부모 명예교사회 강미애 글)

다.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우리학교 교문 앞 실습지에는 봄부터 농사지를 준비로 무척 바쁘다. 교장선생님과 주사님이 교랑을 만들고 비닐을 잘 덮어 학년별로 실습지를 만들어 주신 곳에 오늘은 모종을 심는 날이다. 고추모종, 고구마 모종, 옥수수 씨앗을 직접 뿌리고 심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이 오늘따라 대견스럽기만 하다. 2학년이라 실습의 기회가 적어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모종을 심고 흙을 덮으면서 “잘 자라라!” 하며 모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확하면서 식물과 함께 쑥쑥 성장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한다.(자원봉사회 텃밭가꾸기 도우미 임명희 글)

3. 활동일지는 꼭꼭 기록해요

학부모회 활동 일지 (전연회광품 만들기)			
날 짜	2010. 6. 25.	장 소	금석실
참석인원	배운영(안지영모) 외 15명	기록자	김정애 (송민재모)
활동내용	1. 감자칩 도막 (인위 과일 및 저가채 연박) 2. 비커 및 손모래 수저 등 모한 기구 소독 3. 손 소독 (과연 화장용지와 같이 없다면 물 수 가 없기에 철저적 함) 4. 교실 학생님 인사 받음  5. 원년 좌우동 연동기 1) 생략 할기 : 생략시 생략 		

날 짜	2010. 6. 25.	장 소	금석실	기능별 담당 확인
참석인원	배운영(안지영모) 외 15명	기록자	김정애 (송민재모)	
활동내용	2) "번크림"생명체로 원년 채로 남기 (세움로 유망 정희하)  3) 비커 채워 물 잘이기 2인분 불 : 손모래기 필수)  4) "번크림" 생명체로 남은 후 비커 (한명영모요) 			

Ⅲ.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학부모가 교육의 핵심주체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학력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부모와 학생간의 유대관계에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본다면 본교 학부모회 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활동이 아닌가 싶다.

3월에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보면 이곳 용산의 학부모는 자칭 명문학교로 이름 지을 정도의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 명예교사회에서는 아동교육 및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각종 자원봉사회에서는 소규모학교의 단점을 잘 보완하여 구석구석 선생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시기적절하게 잘 돕기도 하여 교육공동체의 협력체제가 순조롭게 이행되었다. 아이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이 많음으로써 인성교육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역량강화 및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07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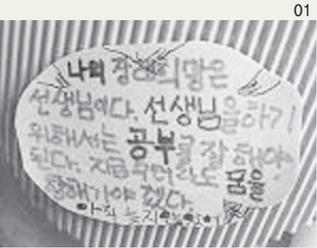
- 07 내가 심은 식물 알아보기
- 08 식물 심기
- 09 잘못 심은 식물 다시 심기

북상초 6학년, 우리는 대표팀이다

- 감독: 선생님, 대표선수: 6학년 학생들 -



오 중 환
북상초등학교 교장



01



02



1. 국가대표 감독처럼 학생들을 파악하자

학교 및 교사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단순히 학생들의 줄 세우기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기회를 그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선 본교 학생들의 현 상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본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5학년 교육과정의 학습결손이 뚜렷하게 나왔다. 둘째, 면단위 소인수학급의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가치관 및 목적의식이 불분명하였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며 시험에 대한 부담감만 증폭된 상태였다. 셋째, 관찰 및 모범대상이 없다보니 학급의 학우들이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었으며 노력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시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에 비해 노력이 부족하며 조금의 노력으로도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학습량에 비해 학습량이 저조하지만 학생들의 자기 만족도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교에서는 6학년 7명(1명은 장애우로 제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결 과 분 석	
국어	부진학생은 국어 받아쓰기도 되지 않고 있으며 난독현상까지 나타남. 대부분의 학생은 제시문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으며 제시문이 조금만 길어도 읽기를 포기함.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글을 왜곡하는 경향이 나타남.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부진함. 자료를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짐.
수학	부진학생 중 한 명은 세 자리수의 덧셈도 힘들어하는 상태이며 두 명은 분수 및 소수의 사칙연산을 마음대로 하고 있음. 단계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으로 분석됨.
과학	실験결과에 대한 해석력이 떨어짐.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짓는 능력이 부족하며 과학을 암기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개념이 많음.
영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하여 영어 학습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거부감이 형성되고 있음.
※ 진단평가결과 부진학생 및 부진학생 위험군 학생수는 생략함.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상담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꿈 설계와 인생그래프 그리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목적의식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하고자 계획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도 주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함을 자각하고 학습량을 늘리는 것에 모두 동참하고자 하였다.

2. 부모님과 통하자

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 개별적인 면담 및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 학생의 경우는 읍내로 학원을 가는 것 대신 학급에서 보충 학습을 한 뒤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을 선화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부모 역시 사교육비 절감 및 자녀의 안전 문제 등이 해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자 수시로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면담 및 전화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상태, 생활태도를 점검하고 있다.

3. 훈련- 스스로 공부하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습시간을 만들자

현재 보충학습으로 「아침공부방」, 「함께하는 오후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하는 토요일에는 「신나는 주말학습」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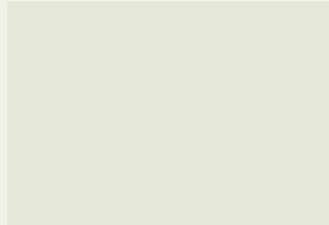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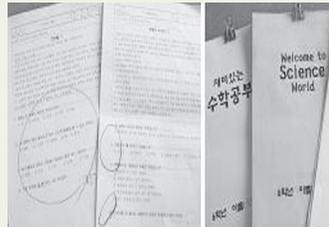
이런 학습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침공부방의 경우에는 새미학습과 연계한 학습으로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이 생소한 학생들에게(본교 학생들의 특성)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문제풀기와 같은 코너를 활용하여 자신의 실력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함께하는 오후학습은 학생들 개인별 학습량 및 목표를 시간마다 정해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개인별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예로 받아쓰기나 읽기가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교과서의 지문을 문단별로 나누어 읽기 및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학습지를 제공하였다.

신나는 주말학습의 경우에는 요리 및 자연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이 다양한 체험 활동의 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요리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만들고



03



삶은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실습과 동시에 점심식사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활동은 본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물 따라 걷기, 갈대 숲에서 세밀화 그리기, 하늘 바라보기, 시인 되어보기 등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신나는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보상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도 만족하며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과정은 더 중요하다

성취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주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 나를 성찰해보고 나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많은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반면 학교에서는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 마음 하나만으로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 하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학교 6학년은 국가대표팀처럼 보인다. 대표팀의 감독인 선생님은 좋은 훈련방법을 연구하고 선수인 학생들은 충실히 훈련에 임한다. 감독과 선수들이 땀땀 뭉치며 웃음도 잃지 않는다. 결과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다.

04



05



06



학교역사찾기로부터 시작되는 학교사랑



김복근

창원 유목초등학교 교장

딸아이의 일기장을 열어보며

누구나 첫사랑에 대한 애뜻함을 가지고 있듯이 초등학교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 한 두가지 썸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루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딸아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반듯반듯한 글씨와 짝짝 채운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 딸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었다. 딸아子和 함께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을 보면서 집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기장이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가족역사기록물이 되어 있었다. 본교가 학교역사찾기 정책연구학교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본교의 역사와 역사물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역사자료로 학교역사 교육을 시킨다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교심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I. 학교사랑은 학교역사찾기로부터

본교는 1986년 9월 1일에 개교하여 24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교가 올해 학교역사찾기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이 길지 않은 역사로 학교역사 찾기 과제를 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도 역사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24년 동안의 학교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현재의 기록물도 재정비하여 잘 관리한다면 10년후, 50년 후에는 학교역사물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좋은 학교역사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교의 학교역사찾기 정책연구학교 과제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교는 학교역사찾기 연구학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목교육25년사 발간, 학교역사자료 수집, 학교역사찾기 관련교과지도요소 추출, 자문위원 협의회, 학교역사찾기 학예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I. 학교역사찾기를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

1.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역사자료 수집

24년의 역사이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학교역사자료 수집활동이었다. 먼저 교

01



02



01 수집된 학교역사자료

02 학교역사찾기 학예행사

사들의 집에 있는 학교역사자료를 찾아보고 본교 졸업생,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홍보하여 학교역사자료를 수집하였다. 본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현직교사들에게는 공문을 보내어 본교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기증해주시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하여 역사자료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학교앨범, 사진, 상장, 학교신문, 성적표, 체육복, 학급문집 등이 수집되었다. 본교 교사들의 노력에 비하면 아직 수집물이 미약하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사자료가 수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 애교심 함양을 위한 학교역사찾기 학예행사

학교역사찾기 학예행사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상징물그리기, 학교 이름으로 글자 그림 그리기, 학교 캐릭터 그리기, 학교 연표 만들기, 교가 바로 알기 및 교가 가사 사전 찾기 대회, 학교 사랑 글짓기, 유목초등학교 조사보고서, 학교사랑 포스터, 표어 짓기, 학교 역사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유목초등’이란 시제로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행시 짓기를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역사찾기 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3. 자문위원회 개최

좀더 발전적인 학교역사찾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정책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및 실천 단계의 중간 과정평가와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헌자료 점검과 면담, 동사무소의 기록물을 통한 자료 찾기의 필요성과 학교역사를 찾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유의미하게 지도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연구학교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더불어 유목교육 25년사 발간 및 학교역사기록물 수집에 관심을 갖고 과제 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 해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III. 현재는 미래의 역사

올해 본교에는 도교육청 학교역사찾기 거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학교역사찾기 교육이 더욱 의미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란 기록이 없으면 세월에 따라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교는 현재의 역사기록물부터 재정비하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남기는 것이다. 본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소박한 추억들을 귀한 교육자료로 보존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년도 유목교육이 먼 훗날 유목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다양한 기록물 수집과 보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03



04



03 학교역사찾기OX퀴즈대회

04 자문위원 회의

친환경 그린스쿨로 새롭게 변모한 가람초



김 종 원

진주 가람초등학교 교장

1. 추진 배경

정부의 「녹색 New Deal」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친환경 그린스쿨조성 사업」은 획일적이고 노후된 기존 학교를 생태녹지 공간 조성, 빗물이용 시설, 에너지 절약 등의 친환경 기법을 적용한 자연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1조원을 투자하여 200개교를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며, 여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을 조성하여 유해 성분을 최소화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학교 여건

진주시 상평공단의 중심에 위치한 가람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공장이 많아 소음, 분진, 배기가스 문제 등으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또한, 학구인 인근 상평공단 업체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과 불경기 등으로 인해 50여 학급이던 학교 규모가 26학급으로 급감하면서 시설 투자의 사각지대로 낙후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개교 당시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된 상태이고

학생들의 옥외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3. 조성 내역

가. 태양광 발전 설비 : 태양광과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시설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

나. 친환경 자재 사용 :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재를 모든 교실 및 건물 내·외부에 사용하여 쾌적한 공간과 효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개선 : 노후된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복도 중창과 출입문 및 벽체를 개선하였다.

01



02



03



01 학교전경

02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03 친환경 자재 사용

라. 잔디 운동장과 교정을 공원화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야외 활동, 교육활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유용하다.

마. 내진딴퍼 보강 시설 :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시설이다.

바. 빗물 이용시설 설치 : 빗물을 저수탱크에 저장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사. 신 개념 녹색칠판 : 분필가루 없는 쾌적한 청정교실을 실현하는 board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아. 야외무대 및 생태학습장 조성 :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야외무대를 조성하였으며, 아름다운 연못과 화단은 녹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자. 특별실 확충 : 영어 체험실, 홍보관, 음악실, 방송실을 정비하였다.

차. 그 외 : 조화대 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방수작업을 실시하였다.



04



05



06

- 04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 05 내진딴퍼 보강 시설
- 06 야외무대, 주차장 설치

4.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의 발생으로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사는 주로 학생들의 하교 후에 실시하고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안전지킴이가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매월 안내장을 발송하여 학교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5. 변화된 모습

그린스쿨 조성 사업을 통하여 건물 내부와 외부를 친환경 소재와 공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였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하는 그린에너지 시공과 옥외 공간을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육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공교육 신뢰와 저탄소 녹색성장 의식 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한마음 이어달리기를 통한 몸짱 도전기



정수영

산청 단성초등학교 교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소아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아비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체의 1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세살비만이 여든까지 간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성인비만과 달리 지방세포의 수가 지 늘어났다. 이 지방세포는 한번 숫자가 증가하면 다시 줄어들지 않아 살을 빼기가 더 어렵고 또 살을 빼다 하더라도 다시 살이 찔 확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성인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소아비만 해소와 체력증진을 위해 단성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 이어달리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들의 비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지방 측정기를 통해 전교생의 체지방과 비만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로 보관하였다. 다음으로 이어달리기 실시를 위해 학교 일과 운영 계획을 수정하여 1교시, 2교시후 쉬는 시간을 각 20분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어달리기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년별 개인 달리기를 실시하여 달리기 능력이 비슷한 4명의 학생을 한 조로 편성, “빨강, 파랑, 노랑, 하양” 4가지 색깔의 배턴을 각 조에 배정하였다.

1교시 후 쉬는 시간(09:40~10:00)은 1~3학년, 2교시 후 쉬는 시간(10:40~11:00)은 4~6학년의 한마음 이어달리기 시간이다. 간단하게 스트레칭, 줄넘기 실시 후 저학년부터 달리기를 시작한다. 3월, 처음이라 1학년 아이들은 트랙 안으로 달리기도 하고, 자기 배턴 색깔을 잊어버려 1등으로 오는 친구의 배턴을 무조건 받아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힘들어 마지막엔 천천히 뛰어 들어왔다. 그러나 4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다. 달리기 실력이 월등해진 것은 물론 배턴을 정확하고 빠르게 주고받고, 그리고 앞 주자가 늦으면 뒤로 나가서 앞서 배턴을 받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단성초등학교의 운동장은 “빨강! 빨강! 파랑~~” 색깔

01



02



외치는 소리로 넘쳐났고, 매 시간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에 열광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한마음 이어달리기 자세도 잡혔고, 시간도 조금씩 단축되었다.

아이들이 기록 향상을 위해 함께 도전하는 가운데 책임감, 협동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 친구들의 관계가 좋아졌다.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선생님들이 대신 달린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그 순간 선생님은 우사인 볼트도 부럽지 않은 역전의 용사가 되어 빠르게 달려 배턴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한다. 다른 조 아이들이 몰려와 볼멘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다음은 우리 조에서 뛰어 주세요.” 하며 귀엽게 부탁을 하고 간다. 우리나라가 축구로 하나가 되었듯이 단성초등학교는 배턴 하나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아이들의 달리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쉬는 시간과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매일 친구들과 달리기 실력을 겨루며 운동장을 누비고 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업 시작 전으로 변경하여 한마음 이어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12월, 체지방 측정기에 다시 올랐을 때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며 단성초등학교의 4색 배턴은 오늘도 아이들의 응원소리에 실려 운동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마음을 이어주는 전화



송 애 리
가북초등학교 교사

1. 시작하며

“선생님, 저 OO인데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 복습했어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 89쪽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3번 문제는 이해가 잘 안돼요!”

가북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화로 집에서 공부한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한다. 숙제는 했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요즘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등을 물으며 하루 일과를 함께 돌아본다.

가북초등학교는 거창읍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여느 촌락의 학교처럼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조부모, 부모님이 있어도 바쁜 농사일로 학습 조력이 힘든 학부모님.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학습조력자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전화 알리미 제도’가 시작되었다.

2. 전화로 이어지는 학습 도움

하나. 전화 알리미 제도의 첫 걸음, 생활 계획표 세우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은 먼저 생활 계획표를 만든다.

가정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므로 저학년은 평균 1~2시간, 중학년은 2~3시간, 고학년은 평일 2시간 이상, 주말 4시간 이상 학습 시간으로 정하여 생활 계획표를 만든다. 주중과 주말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계획표는 주중과 주말 생활 계획표로 나누어 세운다. 학생들이 세운 생활 계획표가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 정도의 연습 후 교사와 상의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만든 뒤 학생들의 가정 학습 공간에 부착한다.

둘. 전화 알리미 제도의 두 걸음, 수준별 학습 과제 제시

생활 계획표가 정해지고 나면 가정에서 학습할 과제가 수준별로 주어진다. 진단평가를 토대로 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준별

학습 과제 제시하여 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시킨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 수준별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셋. 전화 알리미 제도의 마지막 걸음, 전화 알리미

학생들이 생활 계획표에 따라 학습을 끝낸 후 전화하도록 사전에 약속한 후 매일 전화 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초반에는 학생들이 습관화되지 않아 잊어버리고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꾸준히 전화 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전화 알리미 제도는 교사와 학생 간에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기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학습 과제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또 다른 이야기 창구로 활용한다. 또한 가정 일로 바쁜 신 학부모님에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상담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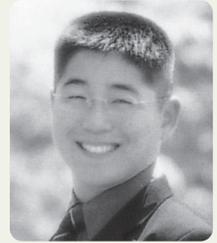
3. 변화의 물결

학교를 마치면 책가방 던져놓고 들에서 놀기 바빴던 5학년의 한 학생, 이제는 집에 가자마자 책가방에서 숙제할 것을 먼저 꺼내 공부를 한다. 초반에 학습 습관이 정착되지 않은 학생들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학생들 스스로 학습이 어느 정도 적착이 된 이후부터는 과제 수행도도 향상되고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감이 높아졌다. 또한, 가정에서 꾸준히 학습을 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변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실 수업에서는 가정에서의 예습, 복습으로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고 학습 분위기도 좋아졌다.

전화 알리미 제도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은 “학생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학생의 자신감도 증진되고 학력도 향상이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공동체 3자가 모두 만족하는 ‘전화 알리미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가북 어린이들의 더 나은 미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 학교 한 학급 이야기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 운영 -



하 재 설
진주 예하초등학교 교사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던 날, 농촌 소규모 학교인 예하·금곡·내동 초등학교(학교장 주관용·강대룡·이동원)의 각 학급에서는 가슴에 큰 이름표를 단 세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았다. 처음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학생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이하 학교군 운영)이란 소규모 학교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협동교육 체제 적용의 다양한 협력교육활동을 전개 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이다.

“선생님, 우리학교는 왜 이렇게 작아요?”라고 불멘소리로 궁금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란 답을 그대로 알려 줄 교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 동심들을 위하여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학교군 운영’이다. 다섯 명이 하기 힘든 기약함주, 여섯 명이 하기 어려운 축구게임 등을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또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침 8시 30분, 중심학교인 예하초등학교의 운동장에는 버스 2대가 3·6학년과 2·5학년 학생들을 한 대씩 나누어 태우고 협력초등학교인 내동초등학교와 금곡초등학교를 향해 각각 출발했다. 버스 안은 기우(杞憂)임을 알면서도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교사와 창밖의 모습이 마냥 좋아 재잘거리는 학생들로 생동감이 넘쳐흘렀다.

예하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모인 세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 주제는 ‘바깥놀이’였다. 선생님과 친구들 소개를 마치고 학습활동을 안내한 교사가 교실 밖으

01



02



01 세 학교의 위치
02 1학년-바깥놀이

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 예닐곱 명 밖에 되지 않던 친구들이 스물다섯 명이 되자 1학년 학생들은 좁아진 교실과 짝 찬 운동장을 몸소 실감하며 즐겁게 게임 활동에 참여했다. 본 수업의 주교사인 담임교사(양혜진)는 “친근감 형성(Rapport)을 위해 활동적이고 스킨십(Skinship)이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즐거워 할 줄 몰랐다. 또래집단이 많을수록 학생들 간의 경쟁과 수업참여가 더욱 활발해 진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수업소감을 밝혔다.

금곡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스물네 명의 학생들이 ‘협동화 그리기’를 했다. 종이블록에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그려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완성품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Video Art)를 연상시켰다. 협동 수업에 참여한 3학년 담임교사(김미영)는 “처음 만난 학생들이 ‘낮가림’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수업이 끝난 후, 다음 달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인사도 주고받으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고 수업 분위기를 전했다.

내동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는 주교사(유진하)에 의해 ‘축구형 게임’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동영상시청과 학습활동 안내로 1차시가 마무리 되었다. 2·3차시는 각 활동 영역별로 협력교사와 함께 3개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각 영역에서 학생들은 모든 영역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소속감과 애정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선상에 있는 고학년 학생들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듯 했다. 수업을 마치고 주교사는 “처음 하는 협력수업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준비도 미숙하였지만 협력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마음 편하게 수업할 수 있었고, 평소 난한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지키는 모습 역시 의외의 성과였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오늘 수업이 정말 즐거웠고 다음 수업인 태권도도 기대가 되며 그때도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다.”며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오가 되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실은 버스가 하나 둘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처음 시행하는 협력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는 버스 안에서 토요일 종례를 대신하고 내리자마자 쏠살같이 하교하는 학생들의 경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흐뭇했다. ‘학교군 운영’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듯했다.



03



04



05

- 03 2학년 - 응원도구 만들기
- 04 3학년 - 협동화그리기
- 05 4학년 - 모둠별 춤 만들기

중심학교 교장(주관용)은 “선생님들께서 학력 향상과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주어 감사하다. 또한 협력학교장 및 전 교직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고마움을 표한다. ‘학교군 운영’을 통해 학교의 교육역량 제고와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학생 인성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남아있는 다섯 차례의 수업뿐만 아니라 세 학교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찾아 ‘학교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학교경영 의지를 밝혔다.

작은 학교가 아름다운 것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잘 이루어져 그들의 마음 한 가운데 ‘학교’라는 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아도 너무 작아 한 반도 안 되는 조그만 학교들이 뭉쳐 새로운 ‘작은 학교’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작은 학교, 이것이 ‘학교군 운영’에 참여한 이들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06 5학년 - 축구형 게임
07 6학년 - 네트형 게임

6.25 60주년 지리산 체험학습 실시 “우리는 6.25를 잊지 않아요”



김 경 희
함안 산인초등학교 교사



01

신록이 그 푸르름을 뽐내는 6월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산인초등학교의 전교생 57명은 6월 9~10일 이틀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6.25를 잊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한국 전쟁 체험 활동을 위해 지리산을 찾았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지리산 자락에서 6.25의 참상을 알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극기 훈련을 통해 자기 주도적 삶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02

사전학습으로 6.25의 발발 원인과 경과 및 영향을 알아본 후, 9일 오후 3~6학년 37명의 학생들이 먼저 지리산의 빨치산 토벌전시관에 도착했다. 8개의 빨치산 아지트, 4개의 빨치산토벌코스, 전쟁전후의 현장을 생생히 재현하고 있는 이 전시관에서 한국전쟁과 빨치산 활동 및 토벌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6.25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빨치산토벌 전시관을 견학한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피부로 와 닿지 않았던 6.25 한국전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잘 몰랐던 것 등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다음 날 10일 오전 5시 30분 일찍 잠에서 깨어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학생들은 통일 의지를 다지고 극기와 인내를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배울 수 있는 천왕봉 등정에 올랐다. 자신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 기필코 정상에 오르겠다고 손가락으로 V자를 펴 보이는 학생들, 재미있고 뿌듯할 것 같다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모두

01, 02, 03 빨치산 기념관에서

쉬여 “정상을 향하여”를 외쳤다. 땀도 흘리고, 숨도 몰아쉬고, 물을 찾고, 투정도 부리기를 하며 오르기를 한 서너 시간 후 학생들은 천왕봉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한편, 1~2학년 19명의 학생들은 다음 날 10일 오전에 지리산에 도착하여 법계사까지 등산을 하였으며 정상을 다녀온 3~6학년 학생들과 합류하여 기념 촬영을 하였고 빨치산토벌전시관을 견학하였다.

학생들과 선생님은 더러는 서로가 되어 격려하고 힘듦을 나누면서 더러는 스스로가 되어 자신의 한계를 높이며 산을 올랐다. 그리고 참여한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올랐을 때의 뿌듯함, 정상에 오르든 오르지 못했던 간에 끝까지 해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맛보았으며, 이렇게 멋진 자연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을 수 있었다는 데에서 오는 벅찬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만나는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하고 대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산인초등학교 어린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산하에서 전쟁과 토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기지 않을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

조용경 교장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국전쟁의 참상을 모르고 6.25 한국전쟁이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이번 체험활동을 위해 박상재 교감선생님을 팀장으로 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매일 학교 운동장 10바퀴 돌기, 합동 체육 시간에 학교 뒷산인 자양산 오르기, 인근의 관룡산, 월야산, 광제산 등 매월 2회 이상 등산하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길러왔으며,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현충일 추모행사, 통일안보 교육으로 북한실상 바로알기 계기교육 등 호국보훈 정신을 두텁게 다져왔다.

이번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낸 학생들은 천왕봉 정상에서 바위를 안고 찍은 개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기념 선물로 받았고 각종 신문과 소식지에 땀방울을 기록하

04



05



06



03, 04, 05 빨치산 기념관에서

게 되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소감문 한 줄 한 줄에는 앞으로도 우리 산인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60년 전 6월 25일 이 땅에 있었던 한국전쟁에서 어떤 이름으로라도 겪어야 했을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산인 어린이들은 그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07



08



07 천황봉에서

08 법계사에서

가족봉사 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운영



김 태 욱
삼계중학교 교장

1. 운영의 취지

우리 아이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봉사활동마저도 마감 시한에 쫓겨 겨우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감동을 주고받는 봉사를 경험하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교는 학부모의 역량을 활용한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을 운영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1교 1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과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 계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학부모가 자녀 및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의 운영 체계

학부모봉사단활동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적극 지원하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학부모봉사단 활동이다. 3인 1조의 학부모단원이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그에 따른 활동 시간을 학부모봉사단이 인증해 주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봉사단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교외봉사활동이 학부모봉사단의 참여와 지도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내면화가 될 수 있는 평가회를 가짐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의 참의미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다.

3.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의 주요 활동

1. 2010학년도 학부모샤프론발대식

지난 해 창단한 삼계중학교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2010학년도 지난 4월 7일에 학교 도서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40여 명의 학부모봉사단

01



02



03



01 학부모봉사단 발대식

02 봉사단 계획 협의

03 삼계원 자매결연

원들은 자녀들의 건전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봉사활동을 지도하고 범국민적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교외 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2. 봉사활동 계획 및 평가회 실시

학부모지도단은 알찬 봉사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부모봉사단실을 운영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정보를 나누고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적인 봉사활동이 되게 한다. 봉사활동 후에는 소감문 쓰기 등 평가회를 열어 내면화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한 단복을 마련하여(2009. 20벌, 2010. 40벌)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여 봉사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2009년에는 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6월에 마산대학 노인전문요양원 및 삼계원에서 위문봉사활동을 하였다. 올해는 방학을 이용하여 광려천 살리기 정화활동, 무학산웰빙둘레길 탐방, 아름다운 가게 운영, 숲속자라터 봉사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다.



04

3. 노인복지시설 가족 봉사활동 전개

학부모봉사단은 매주 정기적인 행사 외에도 어버이날과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어버이날 위문 가족봉사(2009. 마산대학노인전문요양원, 2010. 삼계원)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봉사활동 자원자 50여 명이 삼계원을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하였다. 먼저 활동을 위한 안내 교육을 받고 공연 장소를 풍선으로 장식하였다. 학생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장기자랑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깨와 팔다리 등을 주물러 드리며, 식사를 거들어 드리며 말벗이 되었다. 준비해 간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선물로 버선을 신겨 드렸다.(2010. 5. 8.)

나. 마산시 자원봉사 지원금 가족봉사

가족 봉사를 중심으로 삼계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40여 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두 조로 나누어 실내 청소와 실외 정화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장기자랑과 노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는 도중에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렸다.(2009. 6. 13.)

다.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 봉사

교사, 학생, 학부모 40여 명이 새해를 맞이 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고 세배를 드리는 가족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한 해의 묵은 것을 말끔히 털어내기 위한 청소를 한 뒤 한 곳에 모여 세배를 드렸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준비해 간 프로그램으로 위문 공연을 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어르신들은 고마워하며 다음에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 준비해 간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다.(2010. 1. 6.)



05



06

04 연말연시 가족봉사

05 주변 정화활동

06 휠체어 도우미

4.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봉사활동

삼계중학교는 '이웃과 함께 하는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대상으로 현재 3개 봉사터전과 협약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결연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장애아동과 놀아주기와 주변 자연환경 체험 및 정화활동을 벌였던 장애복지시설 '숲속자라터' 봉사활동을 이번 방학에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노인복지시설 '삼계원' 과 '마산대노인 전문요양원' 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매주 수요일 방과후와 토요일휴업일에 '삼계원' 에서 1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 매회 10여 명의 학생들과 3인 1조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안교실 학생들과 함께 위문 봉사활동을 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을 나누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은 활동으로 '2009.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학교 부분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2009.12. 교육감 표창)

4.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운영의 효과

학부모회의 활성화와 입시사정관계 확대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으나 계획적으로 기획된 봉사활동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샤프론봉사단 활동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핵가족화와 과보호로 이기주의에 치우치기 쉬운 청소년 시기에 참된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과 용기를 줌으로써 작은 정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주변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복지시설 봉사를 통해 자신의 조그만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큰 도움이 됨을 알고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과 함께 한 봉사활동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교육장이 되었으며, 가족봉사 활동을 통해 집에서 늘 부대끼며 함께 생활하면서도 평소 보지 못했던 가족의 진지한 모습에 신선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던 시각이 보호의 대상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바뀌게 되었으며 드러나지 않았던 자녀의 적성에 대한 관심과 심성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앞으로도 학교 및 자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지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7



08



09

07 저녁 식사 도우미

08 한마음 한뜻

09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



국제기록문화 전시회를 다녀와서



박연묵
박연묵 교육박물관 관장

'96 교육개혁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된 날의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쾌청하여 먼 거리의 나들이하기에는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14년 만에 먼 외지의 나들이를 한 셈이 된다. 광복 후 처음으로 국가기록원의 주최로 2010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 전시관에서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동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록원의 관계자들이 우리 집을 세 차례 사전 방문하여 나의 보관 자료조사 확인, 선별 전시물의 가치여부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전시자료로 선정하여 전시회 시작 보름 전에 60여 년간 소중하게 간직해온 나의 애장 기록 자료가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록원의 행사 참석 초청을 받고 원거리인 점과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관을 망설이다가 자주 있는 행사도 아니고 나의 평생에는 참관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것 같아 참관을 하게 되었다.

진주에서 5시 1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어서 11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시간이 넉넉하여 여유가 있었고 마중 나온 동생과도 덤으로 형제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한 행사장에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국제행사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제행사인 관계로 남녀 아나운서가 우리말과 영어로 병행해서 사회를 진행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개막식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기록원장님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장관님의 인사말씀 다음에 독일 베를린 국립도서관장(여)님의 축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조시대에 행했던 국가기록물 봉안의식의 재현이 있었는데 수명의 나팔수와 수십 명의 군병·호위병들이 실록을 실은 가마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식장 주변을 행진하는 모습은 이조시대에 국가 기록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볼거리였다.

이렇게 개막식이 끝나고 전시관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다행히 장관님 뒤에 따라 다녔기 때문에 전시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기록원장님의 보충 설명도 전시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전시장은 '세계기록유산관', '국제기록관', '대한민국기록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물 중 가장 특별한 것은 독일 주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로 1455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의 성경 원본으로서 보험료만도 기천만원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78년이나 앞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고려 말에 인쇄되었다는(복사본이긴 하지만) 직지(심경)도 함께 전시되어 동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또 내년이면 천년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 합천 해인사 소장 8만대장경판은 광복이후 1993년 '책의 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조선왕조의궤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도 각각 특수 제작된 유리 상자에 전시되어 있었다.

대한민국기록관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1948년 제헌헌법 초안을 비롯하여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지나온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도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귀중한 기록물 자료 가운데서 나의 기록물은 어디에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궁금하였는데 일기라는 별도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난중일기와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의 일기와 함께 나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고 61년간 써온 나의 일기 중 일부가 국제기록문화 전시회에 전시되는 뿌듯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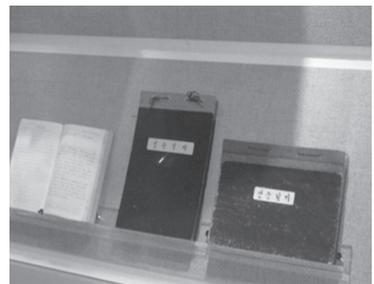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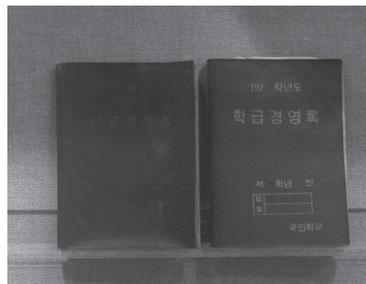
전시회 개막 이튿날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방선거투표일이었지만 수만 명이 전시장을 다녀갔다고 한다.

역사가 숨쉬고 정보가 모이고 미래가 보이는 국제기록문화 전시회에 나의 일기가 전시되고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고 관람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나와 교류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나의 소장 자료들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결과이며 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관람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게 되니 해는 아직도 서편 하늘에 머물고 있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제기록문화전시회 대어 자료목록

연번	기록물 명	생산 년도	규격 (가로×세로)	수량 (건)
1	견학기록물(두미국민학교)	1971	20,0×27,0	1
2	글짓기(1985.3.1~1986.2.29)(대안국민학교)	1986	27,0×20,0	1
3	글씨쓰기 1979 2학년(구호국민학교)	1979	20,0×27,0	1
4	글짓기 3-2(삼성국민학교)	1981	20,0×27,0	1
5	개인일기(1949)	1949		1
6	개인일기(1950)	1950		1
7	개인일기(1951)	1951		1
8	개인일기(1952)	1952		1
9	개인일기(1960)	1960		1
10	개인일기(1968)	1968		1
11	개인일기(1980)	1980		1
12	개인일기(1999)	1999		1
13	학급경영록(1976)	1976		1
14	학급경영록(1977)	1977		1
15	영농일기(1971)	1971		1
16	영농일기			1
17	급전출납부(1952)	1952		1
				17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수업축제의 장으로!



조 영 봉

진주교육청 장학사

해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어느 제도나 장 단점이 있는 것처럼 이 대회 역시 다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장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라 생각된다.

그런데 30여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관도 해보고, 때로는 직접 참가도 하면서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힘들여 준비하여 치루는 이런 좋은 행사를 교사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학습결손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반 학생들을 두고 마음 편히 참관하기에는 교사 자신은 물론 학교 관리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소규모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실행해 본 경험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첫째,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가 또는 참관하는 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학년으로 하도록 한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년이니 지도안 쓰기대회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학년에 대한 교재연구가 되고 수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참관을 하고 싶은 교사나 관리자가 수업참관을 시켰으면 하는 저경력 교사를 대회 당일 아무런 준비 없이 참관을 하게 한다면 거기에서 얻는 소득은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수업을 참관하고 싶거나 또는 참관시키기로 했다면 학습지도연구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해당 차시가 발표되고 나면, 참관 희망교사도 대회 당일 참관할 과목과 차시에 대한 지도안을 자기 스스로 써 본 후 대회에 참관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해당학년에 참관하도록 한다. 수업 지도안을 써 보는 것만 해도 현재 가르치는 학년에 대한 교재연구가 될 것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교감 또는 연구부장에게 자기가 작성한 지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 본 후 참관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당일 날 수업 참관 시에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안과 대회 유인물로 나온 지도안을 비교 검토하여 보도록 하고, 참관하기로 한 과목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신이 심

사위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수업을 보고 분석하고 등위를 내도록 한다. 한 시간은 이 과목 수업을 보고, 또 한 시간은 다른 과목 수업을 보고 하는 것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과목을 네 시간동안 비교 검토하면서 보아야 하고 똑 같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접근을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누가 더 동기유발과 공부할 문제를 잘 접목을 시키는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학습자료는 왜 저러한 것을 이용하고 효용성과 파급성 및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비교하여 본다면 수업을 보는 안목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사실 우리 교사는 그 어려운 교육고시를 통과하여 현재 교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교사의 좋은 수업을 볼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교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습지도 연구대회는 이러한 면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넷째, 4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대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본 것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서 수업을 보는 관점과 안목을 높인다. 대회 당일 오후, 수업 참관자와 교감, 연구부장 등이 모여 간단한 다과를 겸해 자신이 참관한 수업에 대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협의회를 가진다.

다섯째, 자신의 반 수업진도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대회에 참관했던 수업 중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차시의 수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수업을 해보도록 한 후 적어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수업협의회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므로 한 번 실행을 해보면 그보다 더 좋은 수업의 질 향상과 자기 연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소규모학교에서 다수의 교사를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관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던 방안을 소개할까 한다.

대부분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는 저경력 교사들이 많고, 수업연구대회에 관심이 많아 대체로 참관을 희망하는데, 아무리 전문성신장을 위해 필요한 수업 참관이라하더라도 많은 교사가 한꺼번에 자기 반을 비워놓고 학습지도연구대회 참관을 하기란 교사 자신이나 관리자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시에 미리 수업연구대회가 있는 달의 하루를 재량활동시간으로 편성하여 교감, 전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전교생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재량활동으로 운영을 하여 수업에 참관하는 교사나 학교 관리자나 학생들 모두 불편이 없도록 하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았다.

금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력향상과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도안 쓰기 대회를 방학 때 하고 학습지도연구대회를 9월에 하기로 되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비하고 수업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번 방학과 학습지도연구대회는 수업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꿈만 같은 수학여행



김민아
대원초등학교 6학년

처음으로 한국 민속촌에 갔다. 대패를 가지고 나무토막을 밀어서 껍질 벗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하고 전통가옥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사진도 찍었다. 그 후 과천국립과학관에 갔다. 처음으로 철운석을 보았는데 철운석에는 철과 니켈이 포함되어있고 1946년도쯤에 러시아에 떨어졌다고 했다.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룡발자국은 경상남도 고성에도 많아서 공룡엑스포가 열리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복도를 따라가서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다. 그곳에는 닥터피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손을 넣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그런데 손가락에 물고기들이 막 달라붙어서 간지러운 느낌이 나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주 작은 빨판이 계속 손가락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느낌이었다.

과학관의 놀이터에는 과학관다운 놀이기구들이 있었다. 줄에 매달려서 타는 시소, 앉아서 우리가 흙을 퍼 볼 수 있게 만든 작을 굴삭기 같은 놀이기구들이 있었다.

세 번째 코스로 버스를 타고 청계천으로 갔다. 예전부터 서울에는 많이 와봤지만 청계천에 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았다. 물살을 보니 꽤 센 것 같았다. 옆 벽에는 옛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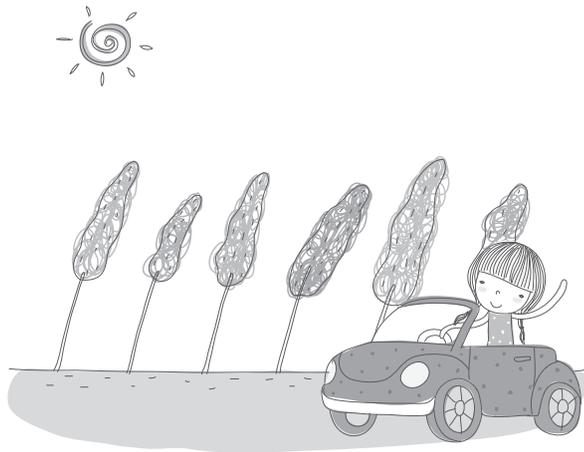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경복궁에 갔다. 경복궁에는 정말 궁이 많았다. 6반 선생님께서 옛날 옷을 빌려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짐을 놔두고 바로 내려와서 저녁을 먹었다. 여행 첫날이라 잠이 안와서 1시 30분을 넘어서 누워 있다가 저절로 잠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다. 그곳은 매우 넓어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었다. 안에서 천에 그림을 그린 것을 보았는데 천에 그렸는데 번지지 않고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것이 신기했다. 다음엔 전쟁기념관에 갔다. 나는 전쟁기념관이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복궁, 민속촌 보다 더 흥미가 있었다. 나는 별로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역사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동상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전쟁 때 썼던 총이나 칼, 화살, 갑옷 등을 살펴보았다. 3층에는 밀랍으로 된 인형들이 있었는데 폭격을 맞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피난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밀랍인형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효과음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좀 무서웠다. 둘째 날도 우리는 역시 밤늦게야 잠들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은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싣컷 탔다. 그 중에서도 바이킹이 제일 짜릿했다. 우리는 가운데에서 한 칸 뒤에 탔는데도 엉덩이가 좀 뺏는데 제일 끝에 탄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다. 아빠가 데리러 오셨다. 나는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오랜만에 집으로 갔다. 또 수학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지낸 2박 3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헬렌 켈러 - A Life - 고요한 밤의 빛이 된 여인 -



한 정 자

진해고등학교 교사

이 책을 접하면 우선 분량 - 400쪽이 훨씬 넘음 -에 놀라고 평전의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논문 방식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개되는 서술방식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너무나 인간적이고 평범한 여인이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멋있고 살다 간 인간 헬렌 켈러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 마디가 “우리가 알던 헬렌 켈러의 가려진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헬렌 켈러의 모습을 봤다.”, “어린 시절 위인전기에서 소개한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소녀’라는 수식어는 헬렌 켈러의 일면만 본 것이구나.”라는 말일 것이다.

그 동안 많이 나왔던 헬렌 켈러의 전기와는 집필 의도부터가 다르다. ‘장애를 극복한 소녀’라는 수식어에 가려져서 인간 헬렌 켈러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저자는 평전이라는 방식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헬렌 켈러의 가려진 어두운 면과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포함하여 이 책에 등장하는 헬렌 켈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의 증언들이 인간 헬렌 켈러의 가려진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아울러 헬렌 켈러의 많은 사진들을 함께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헬렌 켈러 관련 책은 어린 시절의 헬렌 켈러의 생활의 일부와 이후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은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 이후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며, 헬렌 켈러의 정신적 지주였던 애니 설리번 선생님과과의 만남과 둘의 관계, 노년의 삶, 그리고 평범한 여인이고 싶었던 헬렌 켈러의 사랑과 이별, 아픔,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헬렌 켈러의 갈등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른 책에서 헬렌 켈러를 말하면서 흔히 동반자처럼 따라 다니는 인물은 애니 설리번 선생이다. 여기서도 헬렌 켈러를 말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은 ‘애니 설리번’이다. 헬렌 켈러의 부모보다 더 부모 노릇을 했고, 누구보다도 헬렌 켈러를 잘 알고 위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의 스승 애니 설리번. 이 책에서는 설리번과 헬렌 켈러가 50여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이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헬렌 켈러, 그리고 설리번 선생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나은 생각과 삶을 살았던 두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에 대한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이다. 미사여구와 오해에 가려진 그녀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은 헬렌 켈러의 삶을 개척하는 자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아파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기 삶의 주체로 서서 생을 마감하는 헬렌 켈러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두 세계가 있다. 줄과 자로 잰 수 있는 세계와 사랑과 상상으로 느끼는 세계”

몽상가 헬렌의 말처럼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과 자로 잰 수 있는 세계를 말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세계는 ‘사랑과 상상으로 느끼는 세계’이다.

- 본문 652쪽 -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장애를 가지지 않는 정상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든 사랑과 상상으로 느끼는 세계를 원하고 믿을 때 헬렌이 꿈꾸는 세상은 올 것이며, 더 이상 장애는 장애가 아니게 될 것이다.

지 상 갤 러 리

작품명 : 귀향(76.6cm×27cm, 느티나무, 등파이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다

살점 뜯기고
마음 가난해진 새벽녘에야
비로소
귀향



이 봉 진

- 한 김해 활천중학교 교사
- 개인전 3회
- 월간 문학저널 신인상(시부문) 등단
-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 경상남도미술대전 대상 및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외 다수수상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 내일 저는 과학발명대회에 나갑니다.
 제 씨궁은 다음 주에 도시에서 열리는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시골에 살아도 좋은 선생님들과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

배움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으로
 나의 즐거운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석처럼 펼칠 수 있는 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교육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